

현대차, 車 넘어 ‘AI 피지컬’ 기업으로… 이달 주가 37% 폭등

AI 기업 전환으로 주가 재평가 흐름
시가총액 순위 6위로 다시 올라서
현대차 담은 ETF도 수익률 강세
증권사, 목표가 최대 42만원 제시

다시 주도주 자리를 꿰차는 걸까. 올해 내내 지지부진하던 현대차 주가가 1월 들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지난 한 해 현대차 상승률은 72.64%로 같은 기간 코스피(75.63%)에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24년 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위였던 현대차는 지난 6월 한 때 시가총액 순위가 9위까지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13일까지 코스피가 4600선까지 11.35% 오르는 동안 현대차 주가는 29만65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36.93%나 뛰었다. 지난해 내내 주가를 짓눌렀던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시장에서 현대차를 ‘전통적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로봇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뚜렷한 재평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CES 2026 현대차그룹 미디어데이에서 보스턴다이나믹스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왼쪽)’과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 공개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가 흐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시가총액 순위도 6위로 다시 올라섰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현대차 시가총액은 83조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도 강세다. 13일 기준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ETF는 최근 1개월 수익률

10.47%, 1년 수익률 80.27%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현대차를 27.23%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으며, 기아 24.16%, 현대모비스 15.25% 등 현대차 그룹 핵심 계열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총 편입 항목 수는 20개로, 이 가운데 주식 종목은 19개, 현금성 자산은 원화 예금 1개다.

최근 주가와 관련 상품의 상승을 이끄

는 핵심 요인은 현대차가 올해 본격적인 ‘AI 기업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다. 삼성증권은 현대차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7.6% 상향한 40만원으로 제시하며 “2026년부터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상용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현대차의 기업 성격이 완성차에서 AI 기업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과 LS증권은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각각 40만원, 42만원으로 제시하며 피지컬 AI 사업 가치를 본격 반영하기 시작했다. 신한투자증권도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기존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높였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엔비디아 GPU(그래픽 처리 장치) 5만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만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현대차가 발표한 ‘국내 125조원 투자 계획’ 중 71%(약 89조원)가 미래 신산업·연구개발(R&D)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자율 주행·로봇·SDV

등 ‘피지컬 AI’ 기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CES 2026’에서는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와 함께 산업 현장 투입을 전제로 한 아틀라스를 선보이며, 2028년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 본격 투입하고 2030년에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봇을 기술 시연이 아닌 생산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CES 공식 파트너인 글로벌 기술 전문 매체 CNET이 선정한 ‘최고 로봇상’에 뽑혔다. 2018년 7월 수석부회장이던 정의선 회장 주도로 로봇 전담 조직인 ‘로보틱스팀’을 꾸린 지 8년 만이다.

정 회장은 올해 신년회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움직이는 실체’와 ‘제조 공정 데이터’는 빅테크 기업들도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라며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환율 할인’에 테슬라 중심 美 주식 매수세

해외주식 Click

올해 서학개미 23.6억弗 순매수
테슬라 관련 종목에 7.5억弗 투자
알파벳, 엔비디아 등 M7에도 집중

정부가 환율 진정을 위해 벌인 총력전 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환율 할인’ 기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주춤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다시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 쇼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일까지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23억6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동일 기간 미국 주식 순매수액 중 최고치에 달한다. 서학개미들은 지난달 25일, 30일, 31일 각각 8456만달러, 9165만달러, 1억4543만달러를 순매도했지만 새해에 들어서자 다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투심을 가장 자극시킨 종목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2024년 서학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관련 이미지.

개미들의 굳건한 지지를 받았던 순매수 1위 종목으로 ‘테슬라 사랑’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올해도 12월 기준 4억2978만달러를 사들였으며,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인 ‘디렉시온 데일리 TSLA 볼 2X 셰어즈’ ETF도 3억4149만달러 담았다. 테슬라 관련 종목에만 7억5000만달러를 넘게 투자한 것이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M7·애플·알파벳·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메타·테슬라 등)로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순매수 상위 종목에 알파벳(1억7490만달러), 엔비디아(1억87만

달러) 등을 함께 담았다.

더불어 인공지능(AI) 대표주로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를 1억2307만달러,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1억7490만달러씩 각각 담았다.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M7의 존재감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증시에서 M7이 갖는 시장 지배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블룸버그 M7지수가 25% 상승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16% 상승률을 웃돌기는 했지만 알파벳과 엔비디아의 착시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첫 거래일 당시에도 S&P500이 1.8% 올랐지만, M7지수는 0.5% 상승에 그쳤다.

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주식시장에서 모멘텀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며 “역사적 고점에 머물러 있는 대형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證, 금융자산 30억 고객 6000명 돌파

고객자산가, 국내주식 투자비중 늘어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고객 수 6000명 시대를 맞았다.

1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삼성증권의 30억원 이상 고객 수는 6223명으로 2024년 말 대비 5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의 고객자산가의 자산 규모도 급성장했는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고객 자산이 2024년말 대비 70% 가까이 상승, 약 135조 원을 달성했다.

이른바 ‘신흥부자’로 불리는 30대와 40대에서도 고객자산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3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30대의 수가 2024년말 대비 77.0% 가량 증가했고, 40대 역시 같은 기준으로 79.8% 늘어나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한편, 삼성증권은 고객자산가들의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 투자 비중 ↑ ▲반도체·로봇 등의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로 삼성증권 30억원 이상 고객자산가의 포트폴리오(지분성 제외)를 분석해 본 결과, 2024년 말 국내주식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던 반면, 2026년 1월 6일 기준에는 국내주식의 투자 비중이 44%로 늘어나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초고액자산가의 국내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ETF 제외)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유, 현대모비스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회복 및 로봇 산업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하은 기자

단기사채 1160조 돌파… 1년 만에 33% ↑

예탁원 ‘지난해 단기사채 발행 현황’

지난해 단기사채 발행 규모가 1년 만에 33% 넘게 증가하며 116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3일 ‘2025년 단기사채(STB) 발행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단기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11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868조3000억원) 대비 33.6%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단기사채는 만기 1년 이하의 전자등록 방식 회사채로, 기업어음(CP)과 콜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단기사채 조달 수단이다. 최근 금리 변동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금융회사

들이 장기 차입 대신 초단기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발행 유형별로는 일반 단기사채가 83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4% 늘었고, 자산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단기사채는 325조9000억원으로 34.1% 증가했다. 전체 발행액 가운데 일반 단기사채 비중은 71.9%, 유동화 단기사채는 28.1%를 차지했다.

만기 구조는 더욱 단기화됐다. 3개월(92일) 이하 발행 규모가 1156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당일물·1일물·2~7일물 등 초단기 물이 573조4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 단위 자금 운용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證, ‘IMA S2’로 흥행 이어간다

국내 1호 IMA 상품에 1조 몰려

지난해 12월 선보인 국내 1호 IMA 상품에 나흘 만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던 한국투자증권이 두번째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내놓는다.

한국투자증권은 13일 한국투자 IMA S2'를 출시하고,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모험자본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한 뒤,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원금 지급의 무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국내 1호 IMA 상품에는 4영업일 동안 1조590억원이 몰리며, 개인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와 제도에 대한 시장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한국투자 IMA S2’는 2년 3개월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최

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만기 시점의 자산 운용 성과와 자산가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최종 수익이 결정되며, 모집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운용 자산은 국내 인수금융과 기업대출 등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금융 자산이 핵심이다.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우선하면서 시장금리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개인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대체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